

도, 복지급여제도를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

제주도는 세 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해 경제 불황으로 인한 빈곤층 추락, 노인 고독사 등 사회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선다. 새로 개정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에 모든 가구의 중위소득(2014년 4인 가족 기준 월 404만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의 28%,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내에 속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수급자 1만3136가구 2만101명에서 6000명 증가한 2만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금급여도 가구당 평균 4만9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알코올·질병 등으로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해 '통합서비스 지원 등 사례 관리'를 통한 희망·동

행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집중발굴 기간을 설정해 질병과 알코올, 장애 등으로 돌봐 주는 가족이 없거나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돼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밝은 자생단체 회원과 지역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민관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사례관리를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르신
의 다양한
욕구에 맞
는 서비스
제공을 위

7월부터 개편제도...TF팀 본격가동 통합서비스 지원, 민·관 합동 대책마련도

혼자 생활하는 가구 등 소외·취약계층을 찾아내기로 했다.

또 홀로 살다가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통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한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소외계층 안 전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나섰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27일 서귀포시 지역 종교단체를 비롯해 복지기관, 민간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 33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에 나섰다.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한 대상자들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해 긴급복지지원 제도,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적용해 지원한다.

또 소득기준은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해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방문상담과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7명. 사진 왼쪽부터 안태홍(남·21), 윤준혁(남·21), 고희선(여·30), 문재영(여·22), 김효정(여·34), 이용현(남·22), 강동원(남·21)
사진 외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3명. 강승호(남·25), 고민수(남·23), 왕희령(남·25)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도내 최초 지적장애인 바리스타 자격 취득

지적장애인 10명이 도내 최초로 한국커피자격검정원에서 발급하는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금번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커피 바리스타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장애인 중 3명은 현재 플로베 카페 현장에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원장 최

영열)를 이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카페를 확장할 경우 우선적으로 직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배움터에서는 오는 2015년도 4월부터 지적장애인 바리스타 자격증취득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커피바리스타에 관심이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전문 커피 바리스타 실무과정과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도내 사회복지 인권향상을 위해 법률홈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제도입니다. 2015년 현재 전국 4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사회복지종사자·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1. 인권상담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2. 소송 절차 안내 4. 법문화 출장 교육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인권문제,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 양육권, 손해 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 제주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서 신청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제주행복기자단 · 7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실시

도내 장애3급장애인 5859명 신청 자격 적용

올 6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현행 장애등급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내 3급 장애인 5859명(2013년 말 기준)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질 예정이지만 인정 조사결과 정작 수급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담당자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3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대상자들은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에 비중이 많았던 반면 3급 신규 이용장애인들은 문화생활 참여 욕구 및 사회참여의 기회 등 복합적인 욕구를 비출 것'이라며, '그에 따른 이용자의 욕구를 분석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따른 보조인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지금 제공기관

들에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보조인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성 있는 보조인 유치를 위해 보조인의 경력별 연차수당, 피복비지원 등 복리후생과 처우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보조인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있다.

아무쪼록 3급 이용자 확대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기반이 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지원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전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확대되는 그런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한다.

김해숙기자

위탁아동들 '벽화거리 만들기' 활동



▲중·고등학생 위탁아동이 지난 21일 이호동 동마을 거리 일대에서 벽화 그리기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21일 이호동동마을 거리 일대에서 '꿈을 그리다' 벽화그리기 활동을 진행했다.

중·고등학생 위탁청소년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나의 섬, 나의 마음 속 낚은 벽과 이별하기-꿈을 그리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주도내 곳곳에 벽화 거리를 조성하는 활동이다. 위탁아동들의 '착한벽화

'벽화거리 만들기' 활동은 앞으로 10회에 걸쳐 이호동동마을 주택 담벼락 및 주택 외부 벽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벽화거리조성과 더불어 마을 내 환경정비 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KBS강태원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벽화그리기 활동이 진행된 바 있다.

4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 시설·단체명 | 행사명 | 주요내용 | 일시·장소 | 문의 |
|--------------------------------|--|--|---|----------|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이 편한 우리동네 - 다 같이 돌아 동네한바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탐방 및 조사 블로그 제작 후 공개 정보제공 위한 안내책자 배포 | 2015년 1월-12월 한경면 저지마을 외1곳 | 753-4980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2015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서비스 대상자 모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내용: 가사·정서·육아·외출 지원 모집대상: 나이, 수급여부 관계 없이 장애등급(1~6급)여성장애인, 육아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우선 지원, 타기관 중복서비스 제외 지원기간: 1년 (주 2회, 1회 3시간 이상 지원) | 연중(수시모집) 무료 | 702-0295 |
| 도의회 제주복지공동체 포럼 | 읍·면·동 복지지원 협의회 기능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 | 6일(월) 14시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741-2035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아카데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 행정실무교육 고경운 상근부회장(도사회복지협의회) | 15일(수) 14시~18시 협의회 삼다수홀(2층) 참가비 있음 | 702-3784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기초과정) 한국사례관리학회 강사 | 22일(수)-24일(금) 10시~18시 협의회 삼다수홀(2층) 참가비 있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회계기초과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파견강사 | 29일(수) 10시~18시 협의회 삼다수홀(2층) 참가비 있음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인사관리과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파견강사 | 30일(목) 10시~16시 협의회 삼다수홀(2층) 참가비 있음 | |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3월 식품기탁자

▲금강수산유통=냉동해물 26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498개 ▲대왕땅콩상회=음료 260병 ▲동원F&B제주=냉동식품등 6,676개 ▲삼다유통=삼다수(2Lx6)300팩 ▲서문식품=두부 313모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농산물 125상자 ▲이든이네=멸치 6kg ▲일배움터=떡 30kg ▲일조식품=제과류 10봉 ▲자연드림이도점=빵 76봉 ▲제성상회=햄 45kg ▲제주다영농조합법인=수제차 64상자 ▲제주보리춘=보리빵 640개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901봉 ▲행복나눔마트=세제 90kg ▲미소그린=천연비누 150개 ▲SH유통=음료수 860개 ▲착한유통=마른미역 62봉지 ▲김승현=유기농무 100개 ▲제주소담=농산물 2,830개

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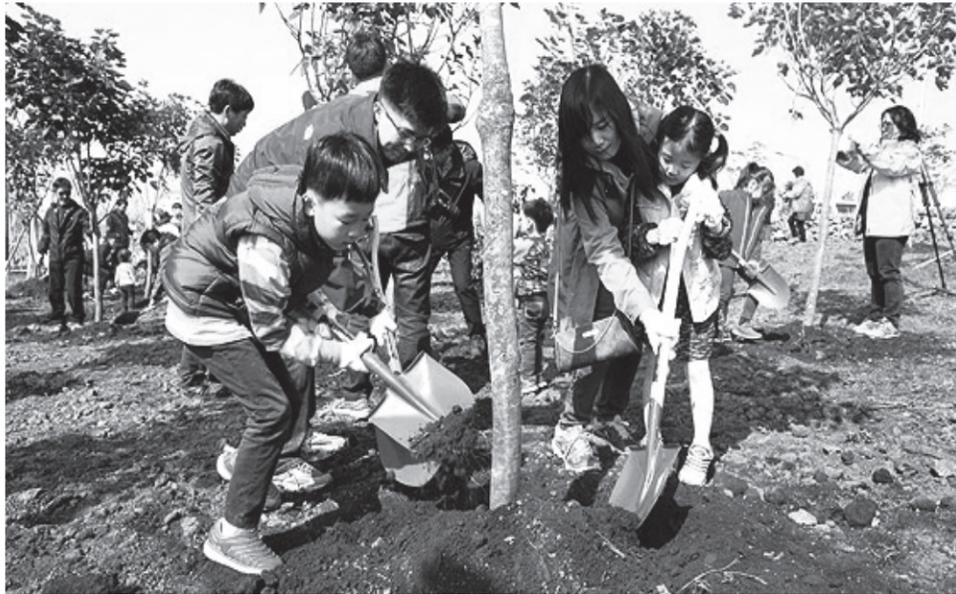
| 구분 | 후원금수입 | 후원금 사용액 |
|---------|-----------|---------|
| 재가결연 후원 | 270,000 | 0 |
| 난치병환아후원 | 60,000 | 0 |
| 자원봉사후원 | 405,000 | 0 |
| 복지사업후원 | 915,000 | 506,000 |
| 푸드마켓후원 | 4,348,300 | 524,870 |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고치환
- 등록번호: 제주 라 01010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인: 고경운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편집디자인: 디자인열림

“추억의 나무를 심어요”



▲지난달 21일 진행 된 추억의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가족이 나무를 심는 모습.

지난달 21일 서귀포지역에서 결혼·출산기념, 귀농·귀촌과 혁신도시 이주 가정, 다문화가정이 참여한 ‘추억의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결혼기념 64가정, 출산기념 21가정, 귀농·귀촌 및 혁신도시 이주 17가정 등 모두 102가구 250여명이 참여해 황칠나무, 재래감나무,

베롱나무, 산딸기나무 등을 심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추억을 기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JCI Mongolia-Leader 정혜재활원에 후원금 전달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달 7일 서귀포청년회의소가 개최한 서귀포청년회의소 창립 제44주년 기념식에 관내 기관단체장 및 국제우호 JC인 JCI Mongolia-Leader와 참석했다.(사진)

이날 기념식에서 JCI Mongolia-Leader는 정혜원에 “장애인들의 자립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200만 원(\$2,000) 상당

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전날인 6일에는 JCI Mongolia-Leader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정혜재활원을 방문해 장애인 시설의 어려운 점들과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소 장애인과 함께 올레길 걷기, 감귤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 통해 아이들의 꿈 키워간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농어촌 지역 아동들의 예술적 감성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 창작 뮤지컬 꿈

소동뮤지컬스쿨(꿈꾸며 소통하는 전래동화 뮤지컬)사업을 진행한다. 지난달 18일 개강식(사진)을 시작으로 12

월까지 운영하는 꿈 배움터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참가하는 아동은 연기·연출교실, 노래교실, 안무교실 등을 통해 꿈을 키우게 된다.

안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차이가 지속되지 않도록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교육을 통해 예술적 감성과 올바른 가치관, 협동심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제주가족사랑상담소(소장 김명수)는 오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7회기에 걸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 및 사회복지 전동자, 개인 및 부부, 가족상담에 관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자아 성장을 위한 집단상담’이라는 주제로 김명수 소장이 강사로 나선다. 참가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가족사랑상담소(726-3277, 726-3288, 010-7246-3277)로 문의하면 된다.

JSW필_하모니, 창단기념 공연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는 오는 17일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창단기념 첫 공연 ‘공감더하기’를 개최한다.

JSW(Jeju Social Worker) 필_하모니 합창단은 지난 해 5월,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도내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하여 결성되어 주 1회(매주 월요일) 정기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사진)

임태봉 회장은 “합창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나 보다는 동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함과 개인의 관점보다 전체를 위한 상호적 관점에서의 교감과 협동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행복한 변화였다. 음악적 창조로서 우리가 경험한 화음의 위력은 복지실천과정에서 협력과 조화로써 한 단계 더 승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이 편한 우리동네 만든다

이 사업은 이웃사랑성금으로 제주사랑의열매가 지원합니다.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이 편한 우리동네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기간 : 2015년 1월 ~ 12월

장소 : 한경면 저지마을 외 1곳



주최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의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지원 :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소장 김경미)는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이 편한 우리동네,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가 있는 이들도 마을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한경면 저지마을과 ‘문화의 거리’로 조성 중인 관덕로 8길을 누비며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지를 확인해볼 예정이다. 또 마을 이장 등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

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대해 알리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지에 대해 확인하고 제안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과 영상도 무료제공한다.

“제주지역 발전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개발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다양한 행사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영철)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26일 도개발공사 야외행사장에서 ‘혁신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도지사, 김명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인규 개발공사 초대사장,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를 비롯한 제주도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개발공사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지난달 20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주 자원 가치 극대화과 공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한편 도개발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

마켓에 지난 5년간 4,0216개(3,5819천원 상당)의 삼다수를 매월 후원하고 있으며, 푸드마켓 물품구입비와 ‘찾아가는 초등복지교육’ 교재 제작비로 매년 2000만원을 지원 중이다. 또한 ‘제주나눔대축제’에도 꾸준히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은 도개발공사는 김영철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과 함께 ‘혁신경영 선포식’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식/마/당

제주빅밴드, 기금마련 연주회 가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지환) 소속 제주빅밴드(회장 김용형)가 지난달 19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연주회를 열었다.

제주중앙지하상가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제주빅밴드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중앙지하상가 활성화와 요양원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모금된 기금과 티켓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

노인대학 봉사클럽, 노래부르기 봉사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원장 임영량)은 지난달 10일 노인대학원 7기 봉사클럽 김창훈 회장 등 12명과 함께 요양원 어르신들과 노래부르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노인대학원 봉사자들은 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같이 춤도 추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 계란 후원



제주웰빙양계영농조합법인(대표 이육기)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을 방문해 웰빙계란 200판을 후원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째 후원활동을 해오고 있는 제주웰빙은 지속적인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고 있으며,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계란을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를 비롯해 독거 어르신, 학대피해 어르신 등을 찾아 전달했다.

벤엘, 개원 9주년 기념예배



사회복지법인 선도원(대표이사 임말시아)은 지난달 15일 법인부설 벤엘 개원 9주년을 맞아 대한예수교 오순절성회 제주교회서 기념예배를 개최했다.

임말시아 대표이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박명자 목사(국제사회복지회 노인복지센터 원장)의 권면의 말씀과 임주리 목사(벤엘 원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만지작 만지작’ 수공예프로그램 실시



서귀포시각장애인가족보호시설(시설장 이승기)은 오는 10월까지 총 20회기에 걸쳐 ‘만지작 만지작’ 수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서귀포시각장애인가족보호시설 이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프로그램 진행 전 악력을 측정해 소근육 발달 척도를 확인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목표인 소근육 발달 및 시각장애인 여가선용 방안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로 ‘부자간 소통’ 한다



서귀포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영신)는 지난달 14일 발달장애인 자녀와 아빠가 함께하는 미디어 여행을 통한 의사소통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 사업 ‘미디어로 소통하는 아빠와 나-미·소·부자(父子)’를 실시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문화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회참여를 위해 준비된 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충석)는 지난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홍보 활동에 참여했다. 도자원봉사센터 5개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제주국제공항, 제주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리플릿 배부와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제주지방검찰청 아가의 집 봉사활동 나서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과 법무부 법사랑 위원일동은 지난달 11일 사회복지시설 혜정원 아가의 집(원장 박두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설 진입로에 페타이어를 이용한 화단조성을 비롯해 주변환경 정리 및 생필품도 후원했다.

청소년 통합미디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도사회복지협의회-영상위-제주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제주중학교(교장 진성필)는 지난달 26일 제주중학교 회의실에서 제주형 청소년 통합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사업인 '탐나는 미소지음 프로젝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공동 협력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중 학생들로 구성된 영상제작 동아리 '몽생이기자단'을 운영하며, 제주영상위원회는 몽생이기자단을 대상으로 영상 미디어교육과 함께 각종 영

상장비를 지원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매월 발행하는 '제주사회복지신문' 및 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작한 영상물을 소개하는 코너를 연재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제주중학교 '몽생이기자단'을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지역복지봉사단으



▲지난달 26일 제주중학교 회의실에서 제주형 청소년 통합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지역복지봉사단 위촉식이 진행됐다.

로 위촉해 1년간 사회복지기부와 식품(물품)나눔 활동에 관·시설 등 미디어 재능기부도 동참기로 했다.

소/식/마/당

창암재활원, 10주년 기념행사 실시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난달 6일 원내 체육관에서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해 10년 동안 걸어온 창암재활원의 발자취를 돌아본 후 창암재활원을 위해 애쓴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원장은 "장애인의 본질적 가치우선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창암재활원의 이념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장애인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축협복합문화센터 체험활동 진행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는 지난달 11일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제주축협복합문화센터를 찾아 우유 생산 과정을 알아보고 치즈와 피자를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동영상 등을 통해 목장에서 일반 가정까지 우유가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모짜렐라 치즈를 따뜻한 물에 녹인 후 잡아당겨 탄력성 알아보기, 피자 빵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토핑 해보기, 우유와 바닐라가루를 섞어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배웠다.

장애인가족역량 강화 부모아카데미 시행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2015년 장애인가족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아카데미를 지난 3월부터 진행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장애인 자녀 양육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활력을 부여하고, 역량강화와 사회적 교류의 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아카데미는 3월 매주 화요일, 넵킨아트 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4월 원예교실, 5월 요리교실을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쇄장비 구입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중증장애인이 제작한 생산품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달부터 판촉물 및 상품제작에 필요한 인쇄에 최신 장비시설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쇄 소재가 다양화됨에 따라 각종 판촉물 인쇄 및 상품 제작 시 인쇄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수익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인쇄장비를 도입했다.

이민숙 원장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분들의 고용안정 및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회 장애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아라어린이집」 장려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아라어린이집'이 전국장애이동통합어린이집협의회에서 주최한 '2014 제3회 장애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더욱 발전하고 노력하는 '아라어린이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라어린이집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장애아동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아동보육기관입니다.

송죽원 개원 14주년 기념식 성료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24일 개원 14주년을 맞아 후원자들과 거주장애인 보호자 등을 초청해 서로간의 감사와 안부를 묻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시론

복지실현의 접근방법



문익순
(전) 제주4·3사업소장

복지제도의 변천은 시대적 정치상황과 궤를 같이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논쟁이 뜨거웠다. 두 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 투자비용, 사업주체 등에서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어 서로 융합(融合)과 보완이 필요하다.

선거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낸 많은 복지공약은 진보와 보수, 선택적, 보편적 복지가 따로 없다. 여·야 모두 이 공약실천에 소요되는 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한다고 했다. 전형적인 표플리즘이다.

야당은 차치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2013년부터 5년간 75조 원을 투자하여 복지시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축소,

타 분야 재정지출을 줄여 89조원을 마련한다는 것.

선택적·보편적 복지 융합해야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는 계속 결핍(缺陷)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종교단체 과세 등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다. 정부는 2013년 일부세제를 개편했다.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라 했지만, 결과는 서민층에 대한 증세로 나타나 조세저항과 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또한 건강증진이란 미명하에 단행된 담뱃값 인상도 서민들만 고통을 더 받게 되었다. 소득재분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재원 부족에도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이다. 그러나 재원마련과 교육비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지방이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도

2014년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일부부유층을 제외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까지 연금이 지급됨으로써, 보편적 복지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요즘 무상급식문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2015년 3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도 무상급식 중단을 발표했다. 일률적인 무상급식제공을 중단하고, 그 비용을 저소득층 복지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복지 실현 위해 재원확보 필요

무상급식중단 반대여론이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계속하는 것은 최선이 고, 중단하는 것이 최악은 아니다. 복지에 왕도는 없다. 복지를 보는 시각, 즉 접근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복지는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 나라 현실과 복지비용 부담이라는 재정형편에 따라야 한다. 반대로 고복지를 추구한다면 그를 실현할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고

‘난 사람’,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 좋다



고대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현대 사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유형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또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기란 힘들다. 그러나 옛 성현들은 나름대로의 사람됨을 기준을 세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즉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다.

‘난 사람’은 흔히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든 사람’은 학식이 많은 사람, ‘된 사람’은 인격적이고 도덕

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서 자주 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난 사람’ 많고, ‘든 사람’은 많은데 ‘된 사람’을 만나기란 어렵다고들 한다. 대개 뛰어난 재주와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사회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바라는 최종의 목적은 재물 욕이나 권력욕 등 자신에 입신양명에 있음을 많이 보게 된다.

요즘에 현대 사회는 날이 갈수록 개인 이기주의가 사회공동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의 많아질수록 그 지역사회 공동체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구실 중에 ‘된 사람’이

행동들은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된다. 주위에 항상 나와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자연에 순리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는 사람다운 된 사람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어떤 환경 환경에서도 주위에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대상에 삶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 앞가림을 하기 위하여 남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너 나 할 것 없이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따뜻한 ‘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칼럼

‘첫’ 자로 길이 열려



김길웅
시인·수필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샀던 「영문법의 첫걸음」이라는 참고서를 잊지 못한다. 초등학교엔 없던 과목이 영어였고 그 첫걸음을 떼기 위해 꼭 보아야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이름 ‘첫걸음’이 어린 나를 사로잡았음은 물론이다. 그 책의 첫걸음은 중학생으로서의 첫 출발을 뜻하는 것이었다. 입학식 날 중학교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첫날의 가슴 두근거림은 말 그대로 감격이었다.

우리말에서 접두어 ‘첫’이 지나는 무게는 엄청나다. 태어날 때 우는 첫울음소리를 고고지성이라 한다. 소리가 지축을 뒤흔들 만큼 우렁차 사물이 처음으로 이룩되는 기적을 빚대기도 한다.

우리 옛 어른들은 비 오는 날만 뺨고 밭에서 살다시피 했다.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에 자란다고 한다. 첫닭이 울 때를 기다려 밭에 나갔다. 밭을 떠나 살지 못하던 선인들의 근면성은 하늘이 알아 햇빛과 우로(雨露)를 내려 풍년을 기약케 했다. 첫닭의 울음은 동살이 터온다는 신호로 시계 못지않게 정확했다.

한 해의 첫 봄, 아직 이른 복지 체감

첫 판에 승부를 내려는 것은 썩 좋은 상황인식이 아니다. 두세 번째 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흐름을 읽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용의주도함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조급하게 굴면 낭패를 살 수 있어 일정 시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과정도 마찬가지다. 넘치는 힘을 나무랄 것은 아니나 과도해선 안된다. 힘의 안배와 인내가 성공으로 가는 열쇠임을 알아야 한다. 첫 판을 딛 뒤의 패배는 더 쓰다. 경기에서 가장 쓴게 역전패가 아닌가. 전철을 밟지 말 일이다.

4월이다. 청양의 해, 을미년을 맞아 어느새 석 달이 지났다. 어떤 이는 울 들어 일터를 얻어 첫 출근을 했을 것이다. 어느 아낙네는 아이들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두고 모처럼 하루의 첫 나들이에 나섰을 테다. 이 해가 아직은 들머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점이다.

한 해의 첫봄이 깊어 간다. 복지사회의 관건은 사회보장제도에 달린 것이고, 그것이 운영의 묘를 얻어야 하는 일이다. 현실생활에서 체감돼야 하는 것이 복지인데, 그러기엔 이른 시점이고 먼 지점에 있는 게 아닌지.

‘첫’ 자로 길이 열린다. 유채꽃이 섬의 들판을 노랗게 물들인지 오래고, 개나리도 울을 넘어 밖을 기웃거리다. 팝콘 터지듯 꽃 다튀 피는 첫봄, ‘배를 저어 가자 험한~’ 하고 힘차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 보면 어떨까.

걷기 불편한 어르신도 생태여행 '손쉽게'

-(주)제주생태관광, 보행약자를 위한 여행안내서 발간



관절이 불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나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도 제주의 생태여행지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행전문 사회적 기업 (주)제주생태관광은 최근 여행 가이드북 '발편한 여행-보행약자를 위한 생태관광'을 발간했다.

이 책은 '발편한 여행'이라는 부제답게 걷는 것이 다소 불편하거나 어려운 이들도 안전하게 생태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스무 곳을 바다, 숲, 오름, 습지·하천, 문화 등 5가지 주제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해당 여행지에 대해 지질, 역사, 문화 등의 관점에 소개한 뒤 장애인화장실 유무, 경사로 유무 등 편의시설을 보기 쉽게 픽토그램 형식으로 표시했으며, 책자를 못 받은 이들도 발편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웹페이지(www.storyjeju.com)와 이북 형태로도 만



▲제주생태관광에서 발행한 '발편한 여행-보행약자를 위한 생태관광' 20곳 안내 지도

들었다. 이 책을 발간한 (주)제주생태관광 윤순희 대표는 "장애가 있거나 보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제주자연과 문화, 역사와 마을을 찾는 생태관광의

특성상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이들은 생태관광하기 힘들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3고통의 상징인 '무명천 할머니' 진아영 씨 생가가 있는 월령리 선인장 마을은 인근 협

재, 금능 해수욕장과 한담 등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해변을 따라 나무데크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휠체어 여행객들이 편하게 바다조망을 즐길 수 있다. 산책로가 끝날 즈음이면 마을 안으로 들어서는 골목길의 검은 현무암 돌담 위로

비죽 솟은 선인장은 6월이면 노란색 선인장 꽃을 피워 검은 현무암과 대비를 이뤄 장관을 연출한다.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인해 오래 걷는데 부담을 느껴 꽃자왈을 찾는데 부담스러운 이들에게는 금산공원을 추천한다. 애월읍 남읍리 한복판에 있는 숲인 금산공원은 상록수가 가득해 있어서 어느 곳보다도 숲이 울창하고, 오래된 원시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천연기념물 제375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금산공원은 예부터 임금이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해 원시림을 이룰 수 있었으며, 작으나마 꽃자왈의 생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여행 가이드북 '발편한 여행'은 제주도청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아 총 1,000부 제작됐으며, 책자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생태관광(064-782-4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복지」 이야기 ②

노인요양시설 '장난감 도서관' 개설 심리치료 효과 높아

일본사회복지법인 혼간지류코쿠회에서 운영하는 특별양호 노인요양시설 '비하라 혼간지'(나카네 초 신임 시설장, 교토부 조요시)는 「장난감 도서관」을 개설한지 3년째로 지역의 어르신·아동 교류의 장소로 정착되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은 일본 장난감도서관재단이 아동들을 위해 많은 장난감을 준비하고, 마음에 든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다.

이 노인요양시설은 장애인

고용 등 다양한 사회 공헌을 하고 있으며, 2013년 아이들과의 교류가 입소자의 심리치료로 이어질 것이라는 권유를 받고 어르신·아동 교류 프로그램으로 「장난감 도서관」을 노인요양시설 안에 개설하게 됐다. 그해 2월 준비를 위한 연수회를 열고 4월부터 매달 2째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된다.

이에 맞춰 자원봉사에 의한 카페도 개설해 부자와 손자, 증손과 노인의 교류가 깊어져 작년 4월부터는 이용자

전원의 생일 파티가 「장난감 도서관」이 진행되는 날에 맞춰 함께 열린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어르신·아동 교류 프로그램」 전국 장난감 도서관 30주년 기념 행사로 약 100명의 아동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재밌는 영상 등이 기록된 영화 제작도 행해졌다.

〈출처 = 복지신문 (2015. 3. 4), <http://www.fukushishimbun.co.jp/topics/8255>〉

〈번역 = 전학봉 사원〉



▲노인요양시설 안에 개설된 '장난감 도서관'에서 노는 모습



복지신문

일본의 복지신문은 1955년부터 사회복지발전이란 사명으로 당시의 복지관련 전문가에 의해 발행됐다. 이후 사회복지 유일의 전문지로서 대상자 및 지원자의 입장에서 세상의 움직임을 전해 왔다. 근래에는 사회복지 동향을 보도하고 폭넓은 과제를 지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탐방

(65)온누리청소년쉼터

“청소년에 꿈과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는 3월 봄날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온누리청소년쉼터’를 찾았다.

서귀포 동문로터리에서 서귀포 의료원 방향으로 큰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골목초입에 회색 2층 건물로 된 일반 가정집에 조그만 간판이 붙어 있어 겨우 찾을 수 있었다. 계단을 올라 1층으로 들어가니 넓은 거실에 사무실과 상담실, 주방이 있었고, 2층은 방 3개로 이루어진 생활공간으로 구성된 공간에 소장, 직원 2명과 함께 아이들이 살고 있다.

온누리청소년쉼터는 가정 기능 상실, 학교부적응,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위기 청소년들에게 중장기 보호를 제공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통해 사회복귀시킴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기반 조성 마련하고자 설립됐다. 2007년 7월에 사회복지법인 예담이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만9세부터 24세까지 여자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쉼터사업으로는 숙식제공, 의료서비스제공 등 보호사업, 자존감 향상, 예의법절교육, 학교폭력 예



▲바리스타교육(왼쪽), 미니정원가꾸기(가운데 상단), 온누리청소년 쉼터 외관(오른쪽), 온누리청소년쉼터 연합프로그램(가운데 하단)

방 및 성교육 등 교육사업,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상담사업, 중·고등학교 학력취득, 학습지도, 학교 관련 지원 등 학업지원사업, 직업적성·진로탐색검사, 취업훈련

호 방문해 주시며 미래의 꿈인 청소년을 키우기 위한 일임을 알리고 설득해 주셨다고 한다. 또한 평화모니의 공연을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의 집을 빌려 지역주민과 함

아이들 미래를 위해 학업 프로그램 중점 운영 문화공연, 거리상담 등 지역과 연계 방안 모색

등 자립지원사업, 소식지 발간 등 홍보사업 그 외 조직관리사업, 건강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 자리 잡기까진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재의 집을 구하기 위해 이장님께서 함께 가가호

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거리상담 등 지역 연계방안을 꾸준히 모색 중이다.

강만수 소장은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기에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해 생활지도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아이들이 쉼터에 대한 신뢰

가 떨어지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 소장은 “이 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는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청소년쉼터는 위기(가출)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현재 제주도내에는 제주청소년일시쉼터, 제주청소년쉼터, 온누리청소년쉼터, 동광청소년쉼터, 성지청소년쉼터 총 5개의 청소년쉼터가 위기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문의=733-1376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19

신용불량자?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C씨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빚을 갚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신용상태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C씨처럼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위 ‘신불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된다.

누구나 한두 번 이상은 들어봤을 ‘신불자’는 신용불량자를 줄인 말인데 이 말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일까?

◆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란 쉽게 예상할 수 있듯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신용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사라진 제도의 잔존물이다. 마지호적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아직도 ‘호적 등본을 떼어오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같은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과 같은 경우다.

2005년 초에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현재는 법률명 띄어쓰기를 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그러나 용어와 제도는 사라졌지만 신용과 관련된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점에서 실제로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 신용정보 관련 업무 진행

그렇다면 현재 신용정보와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은행연합회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용정보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

고 있는 공공기록정보를 모아서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 공공기관, 신용정보업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정보가 공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더하여 신용정보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와 개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신청자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서비스 제공 가부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금융회사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신용등급 확인방법

마지막으로 신용등급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4등급이니 5등급이니 하는 신용등급은 공적이고 통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신용정보회사들이 자체 시스템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들을 통한 정보 조회의 경우 조회 자체가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잦은 조회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 정보는 신용정보 전반에 대한 것이고 신용등급이나 다양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